

아프면 편하게 방문하세요 그가 있는 곳에

DB하이텍 이슬 보건관리자

글 천성윤 사진 강권신



DB하이텍 부천캠퍼스
이슬 보건관리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사내 소문이 자자하다.
누구에게나 자상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처방을 해주는 그는
사업장에 없어서는 안되는
‘Special One’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관리자

이슬 보건관리자는 ESH(Environment Safety Health)팀의 안전보건파트에 소속되어있다.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부상 없이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한 보건관리 업무를 한다. 주 업무는 건강관리실 운영·관리, 건강검진 계획 및 실시, 요 관철·유소견자 사후관리, 응급처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가 상주하는 건강관리실은 이슬 보건관리자 1인이 근무하는 환경이다. 까닭에 1,500명에 달하는 부천 캠퍼스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세부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는 사내 보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면 자신이 소화하는 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이 안타까워서 직접 사내 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가 보완한 사내 인트라넷 보건관리시스템은 노동자 자신이 근무하는 공정에서 취급하는 위험 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환경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접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상담 시 추적 관찰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었다.

이슬 보건관리자

2020~ DB하이텍 보건관리자

2018~2020 서울근로자건강센터

2013~2017 경기남부 소재 병원

이달의 한마디

임직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보건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역량이 빛을 발했을 때, 사람을 살리다.

“최근 업무 중 가장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건물 내 화장실 부근에서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그는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하였고, 다행히도 정상 호흡이 돌아와 깊은 안도를 했다.

“너무 놀라 그날 하루 종일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심폐소생술만큼은 꼭 모든 노동자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구나.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와닿던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례도 있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타이레놀을 받고 싶다고 방문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약물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을 터. 이슬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는지, 통증의 양상은 어떤지 등을 세부적으로 물어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그 노동자는 혈압이 매우 높았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혈압약 복용을 시작했다.

“혈압약 처방 후, 두통 또한 사라졌다면서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보람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노동자와의 유대감이 중요해요”

그는 안전보건 관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으로 노동자와의 유대감 형성을 꼽았다. 노동자 건강관리 상담을 할 때 유대감 형성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 추적 및 관찰에 큰 도움이 됐다.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는 보건관리실을 찾은 한 명의 노동자도 소홀히 보지 않고 마치 가족을 대할 때의 마음으로 정성스레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

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그동안 제약됐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자분들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싶어요.”

이슬 보건관리자는 밝은 미소를 항상 잃지 않는다.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진료하는 그 모습 덕분에, 보건관리실을 찾는 DB하이텍 노동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다. 🍀

